



나재철 금투협회장, 이스라엘대표와 금융협력 논의
9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회의실에서 나재철 금투협회 회장(오른쪽)과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대사가 간담회를 가졌다. 양국의 금융투자 산업간 투자확대 및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투협



농협은행 외환사업부, 포상금으로 우리쌀 기부
NH농협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 임직원이 서대문구 이웃을 위한 기부에 동참했다. NH농협은행은 오경근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과 외환사업부 직원들이 서대문구 천연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우리쌀 600kg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오경근 농협은행 부행장(왼쪽)이 9일 서대문구 천연동 주민센터에서 유명선 천연동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NH농협은행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이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품질관리 및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29개 기업이 선정됐다.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은 품질시스템, 제품개발 및 기술력, 고객만족, 신뢰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성운 기자

경동나비엔 DC온열매트 굿디자인 어워드 '위너' 선정

경동나비엔이 최근 출시한 '나비엔 DC온열매트(EME500)'가 한국굿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1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위너(Winner)로 선정됐다.
9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나비엔 DC온열매트는 '눈 덮인 향아리'를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으로 해 모서리 없이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담았다. 눈이 덮인 듯 부드러운 질감의 상단 커버 형상, 눈이 덮이지 않은 하단 커버쪽 부분은 거친 표면처리해 형태와 더불어 재질에서도 대비를 줘 디자인 컨셉을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인사

- ◆행정안전부 ◇과장급 정보△민간협력과장 박이상 △상황담당관 조인창 △수습지원과장 안길주
- ◆미래에셋증권 ◇ 해외법인 대표 신임△ 홍콩법인 조완연 △ 싱가포르법인 성준업

부음

- ▲김세연씨 별세, 지용수(KBS청주 기자·전 보도국장)씨 장모상= 9일 오전 7시 20분, 청주 하나노인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11일 오전 8시. 043-270-8150
- ▲천준자씨 별세, 박정숙(창녕군 환경위생과장)씨 모친상= 9일, 진주시 진주센텀장례식장 지하 1층 103호, 발인 11일. 055-795-2800

공유주방



이상연의
창업 칼럼

공유주방이란 한 공간에 여러 가지 브랜드나 업종이 플랫폼의 공유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공동 공간적 외식사업을 의미한다. 주방들이 포함된 복합주방과 영업공간이라는 신조어이기도하다.

코로나19이후 공유주방이 새로운 창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공유주방 사업은 낮은 임대료와 제반 시설을 이용해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업적 편리성과 새로운 브랜드나 신메뉴를 위한 테스트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 창업의 형태보다 낮은 창업비용이 낮아 외식 벤처형태의 창업자와 청년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창업 형태라 할 수 있다. 공유주방이 새로운 사업으로 성장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투자를 받은 사업이 나타나고 있다.

우버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이 만든 공유주방 '클라우드 키친'은 우리나라의 토종 공유주방 브랜드인 심플키친을 인수해 운영 중이다.

클라우드 키친이란 인도에서 먼저 등장한 서비스로 공유 가능한 주방을 사용하며, 배달을 하지 않는 점포가 그 브랜드가 입점하지 않는 지역에 가상의 점포를 내고 배달 서비스를 하는 사업의 형태를 의미한다.

또한 배달 음식 전문 공유브랜드 '고스트키친'은 ICT기반으로 약 124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개러지 키친'은 배달 음식 공유주방 브랜드를 표방하며 하남, 계양, 송파 지역에 출점 운영 중이며 '공유 주방 1번가'도 많은 사업장을 확산

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형태의 성장은 우선 O2O 서비스 기반인 배달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영업 활성화로 가능한 사업이다.

주방의 공유를 통해 메뉴나 상품의 제조가 가능하지만, 매출을 위한 판매는 주로 온라인을 통한 배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운영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시장 휴폐업의 속출과 경성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업 약화에 창업비용과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유주방이 창업자나 기 운영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공유주방의 사업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 정보생산 및 제공, 관련 부처와 협조체계 구축, 창업자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성장 속도에 맞는 우수공유주방 인증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완화 등 각종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민간부분에서도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져야 한다.

정부는 공유주방과 관련한 식품 위생법 전반을 검토, B2B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지만, 외식산업을 주도해온 일반 음식점 영업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다양성과 관련 규제와 지원으로 성장한다.

공유주방은 창업의 접근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지녔고 운영적으로 편리성에 기반한 창업 형태다.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적극적 지원과 정책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의 현실적 접근이 용이한 공유주방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현대차, 고대의료원과 이동형 병원 서비스 공동연구

차량에 모바일 병원 시스템 구축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시험 운영

현대자동차와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손잡고 미래형 모빌리티 의료 서비스 연구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8일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 메디사이언스 파크에서 지영조 현대차그룹 이노베이션담당 사장,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스마트 의료기기-이동형 병원 개발 공동연

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차와 고려대학교의료원은 2023년 4월까지 18개월간 노령,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취약계층에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문진료 서비스를 연구 및 시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소형 SUV와 대형버스를 지원하고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이 차량을 통해 요양원과 거동불편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 및 진료한다. 차량에는 스마트

의료기기가 장착돼 다양한 진료 및 검사가 가능하며 고려대학교의료원의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질병 진단부터 치료까지 통합 지원하는 '모바일 병원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지영조 현대차그룹 이노베이션담당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병원 접근성이 낮은 의료 소외계층에게도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



지영조 현대차그룹 이노베이션담당 사장(왼쪽)과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업무협약 체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이 '핑크런 플러스'의 하반기 대회를 끝으로 2021년 핑크런 행사를 모두 마쳤다.

/아모레퍼시픽

유방암 환우 위해 전세계 4.8만명 함께 뛰었다

아모레퍼시픽 '2021 핑크런 플러스' 행사 종료

아모레퍼시픽은 비대면 레이스 형태로 전환한 '핑크런 플러스'의 하반기 대회를 끝으로 2021년 핑크런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핑크리본 캠페인의 대표 프로그램인 '핑크런'은 유방 건강 인식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21년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는 비대면 레이스인 '핑크런 플러스'로 전환했다.

상반기 대회(6월)와 하반기 대회(10월)로 나눠 진행한 핑크런 플러스는 대회 기간 일주일 동안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글로벌 러닝 어플 '스트라바(STRAVA)'를 활용해 5km 이상 러닝을 완주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회별 모집 인원은 각각 7000명으로 핑크런 공식사이트에서 접수 시작 4일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스트라바 어플 내 '핑크런 플러스 챌린지'를 개설해 전세계 164개국 4

만 8000여 명이 함께 달리는 글로벌 핑크리본 행사로 발돋움 했다.

2021 핑크런 플러스는 비대면 러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였다.

2021년 10월 현재까지 42만 1000여 명이 핑크런에 참여했으며, 누적 기부금액은 약 42억원이다. 핑크런 참가비 전액은 한국유방건강재단으로 기부해 저소득층 유방암 환자의 수술치료비, 예방검진비 지원사업 등에 사용한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

KCC KRCA 7년연속 선정

KCC가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7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 우수기업(KRCA)'에 뽑혔다.

9일 KCC에 따르면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시상하는 KRCA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평가에 직접 참여해 국내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평가한다.

KCC가 올해 발간한 '2020/21 KCC 지속가능성보고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분기까지 KCC의 ESG 경영활동과 그 성과 및 주요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GRI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내용의 신뢰성, 전달력, 완성도 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경영 활동을 보고서에 잘 담아냄으로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KCC는 이번 수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